



반려동물 예뻐도 '뽀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2018년 7월, 위스콘신주에 사는 그렉 맨투펠(48) 씨는 독감과 비슷한 발열, 구토, 설사 증세를 보였다. 그는 독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과 다리에 멍 자 국이 나타나 서둘러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 검사 결과 그는 '캡노사이토파가 카니모르수스(Capnocytophaga canimorsus)' 로 알려진 병원균에 감염이 됐으며 패혈증으로 이어져 코, 양손, 무릎 아래 세포 조직과 근육 손상이 너무도 광범위해 결국 사지를 절단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위스콘신 의과대학 감염질환 전문의 실비아는 "감염에 대한 그렉의 면역체계 반응이 혈압을 떨어뜨렸고, 사지의 혈액순환을 감소시켜 괴사가 일어났다"며 "개를 키우는 사람들 99% 이상이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 이는 정말 희귀한 사례" 라고 전했다.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등 인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때론 사람을 물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피부, 호흡기 알레르기, 바이러스 감염질환을 옮기기도 한다.

■ 알레르기 가장 흔해

반려동물로 인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은 피부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다. 반려동물의 비듬이나 침, 소변 등의 알레르기 항원이 사람의 인체에 들어와 재채기, 기침, 콧물,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약 35~45%가 피부·호흡기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

특히 천식, 비염, 아토피가 있는 사람 중 반려동물 접촉으로 인해 심하면 기도가 좁아지고 경련이 일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병원을 방문해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증상이 반려동물 때문인지 알아보고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확인되면 가능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키우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해당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항원을 몸에 조금씩 주입하는 면역치료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다.

■ 반려동물에 물리는 사고도

사람이 개나 고양이 등에게 물리면 광견병이나 파상풍 등 감염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상처 부위가 작더라도 반려동물의 이빨에 있는 세균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상처에 다른 세균이 추가로 감염되는 2차 감염의 발생 우려도 있으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애완용 개와 고양이에게 반드시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고, 밖에 데리고 나갈 경우 애완동물이 야생동물과 싸우거나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집에서 키우는 개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시 사람이 물리거나 상처를 통해 동물의 타액 속 바이러스가 사람 몸 안으로 침입할 수 있다.

■ 반려동물과 뽀뽀 조심해야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병원성 세균은 견강한 개와 고양이의 침에서도 발견된다. 개나 고양이의 입속에는 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세균도 존재한다.

개의 26%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세균성 병원균인 '캡노사이토파가 카니모르수스(Capnocytophaga Canimorsus)' 는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서 감염되지만, 때로는 그저 긁히거나 훔아지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 만성질환자들은 반려동물이 지닌 세균에 더욱 취약하므로 반려동물과의 뽀뽀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개나 고양이의 타액에서 발견되는 병원균은 패혈증, 수막염의 원인이 된다. 캡노사이토파가 카니모르수스가 반려동물의 침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지면, 패혈증과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 감염



과 장기 기능 부전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발열, 빠른 맥박, 호흡수 증가, 백혈구 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전신에 걸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발열, 기침, 무기력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신속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신체 장기 기능의 장애나 쇼크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다.

■ 헤일마니균도 문제

지난 2016년 3월, 일본의 반려동물 전문사이트 시포(sippo)는 일본 신슈대학 의학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반려견과의 뽀뽀는 헬리코박터균 종인 '헤일마니' 를 전이시켜 사람의 위암 발병률을 높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헤일마니는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보다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으며 발암성이 7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일마니균이 사람에게 직접 감염될 확률은 0.37%로 미미한 편이지만, 반려견을 통한 감염률은 67~86%로 높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아지 28마리 가운데 24마리의 입에서 헬리코박터균 DNA가 검출됐고, 강아지의 혀와 침에 헤일마니균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티푸스성 질환이나 식중독의 원인인 살모넬라균, 설사를 유발하는 이-콜리대장균(E-coli) 등 다양한 질병이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예뻐도 반려동물과의 뽀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비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